

수능완성
언어 심화 총정리

1. 구개음화는 조음위치!가 바뀌는 것

2. 비음화, 유음화는 일반적으로(예외도 존재함 그러나 예외를 준다면 <보기>를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 것) 조음방법!이 바뀌는 것

3. <보기>는 음절 구조의 유형 및 음절 구조의 변동에 관한 학습 활동이다.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국어의 음절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의 구조로 실현된다.

- a. 모음
- b. 자음 + 모음
- c. 모음 + 자음
- d. 자음 + 모음 + 자음

그런데 어떤 단어에서 연음이 일어나면 앞 음절과 뒤 음절의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다. 음운 변동이 일어나도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다음 단어들을 연음이나 음운 변동에 의해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로 나누어 보자.

㉠ 압정 ㉡ 잡일 ㉢ 축하 ㉣ 많지만 ㉤ 걸눴은

-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 (A)
-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없는 말: (B)

A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B

- ㉢, ㉣, ㉤
- ㉠, ㉣, ㉤
- ㉠, ㉢, ㉣
- ㉢, ㉣
- ㉠, ㉣

해설은 다음 페이지에

[정답] ⑤ ㉠: ‘압정’의 발음은 [압뺨]이다.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뀐 음절이 없다.

㉡: ‘잡일’의 발음은 [잠닐]이다. 둘째 음절에 ‘ㄴ’이 첨가되어 둘째 음절의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뀌었다. 곧 ‘d + c’의 음절 구조 유형에서 ‘d + d’의 음절 구조 유형으로 바뀌었다.

㉢: ‘축하’의 발음은 [추카]이다. 첫째 음절의 종성 ‘ㄱ’과 둘째 음절의 초성 ‘ㅎ’이 축약되어 둘째 음절의 초성 ‘ㅋ’으로 발음되므로, 첫째 음절의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뀌었다. 곧 ‘d + b’의 음절 구조 유형에서 ‘b + b’의 음절 구조 유형으로 바뀌었다.

㉣: ‘많지만’의 발음은 [만 : 치만]이다. 첫째 음절의 종성 ‘ㅎ’과 둘째 음절의 초성 ‘ㅈ’이 축약되어 둘째 음절의 초성 ‘ㅊ’으로 발음되었으나, 첫째 음절의 종성인 ‘ㄴ’은 그대로 있으므로 음절 구조 유형은 바뀐 것이 없다.

㉤: ‘걸늬은’의 발음은 [건늘근]이다. ‘늬은’의 ‘ㄱ’이 뒤 음절로 연음됨으로써 셋째 음절의 음절 구조 유형이 바뀌었다. 곧 ‘d + d + c’의 음절 구조 유형에서 ‘d + d + d’의 음절 구조 유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 ㉢, ㉣은 A에 해당하고, ㉠, ㉤은 B에 해당한다.

4. 덧대다에서 ‘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근이고 ‘덧-’은 접사임

5. 맞먹다에서 ‘맞-’은 접사임

6. 굶주리다에서 ‘굶-’과 ‘주리-’는 모두 어근에 해당함

7. 들볶다에서 ‘들-’은 접사에 해당함 ‘볶-’만 어근임

8. <보기>는 조사의 쓰임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의 밑줄 친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당국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폈다.
- ㉡ 물이 얼음이 되었다.
- ㉢ 새야 새야 파랑새야.
- ㉣ 오늘까지만 등산을 해.
- ㉤ 개는 늑대와 비슷하다.

- ① ㉠: ‘에서’는 주격 조사로 쓰였다.
- ② ㉡: ‘이’는 보격 조사로 쓰였다.
- ③ ㉢: ‘야’는 호격 조사로 쓰였다.
- ④ ㉣: ‘까지’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 ⑤ ㉤: ‘와’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정답은 다음페이지에

{정답}

- ④ ㉔에서 조사 '까지'는 '오늘'에 결합하여 어떤 일에 관련되는 범위의 끝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고, '만'은 '오늘까지'에 결합하여 역시 보조사로 쓰였다. 따라서 '까지'가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조사 '에서'는 앞말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㉑에서와 같이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㉑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조사 '이'는 ㉒에서의 '물이'의 '이'처럼 주격 조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얼음이'의 '이'처럼 보격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㉒에서 '이'가 보격 조사로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조사 '야'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손아랫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부를 때 쓰는 호격 조사로 쓰인다. 따라서 ㉓에서 '야'가 호격 조사로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조사 '와'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㉔에서와 같이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㉔에서 '와'가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무조건 외워야할 것: '까지'는 보조사에 해당함 + '와'는 접속 조사의 쓰임도 있지만 부사격 조사도 가능

9. '가까웠으므로'의 형태소 분석은 어간 '가깝-', 선어말 어미 '었-', 어말 어미면서 연결 어미 '-으므로'로 해야함

10. '어제 집에 가는데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라는 문장과 '광화문 광장에 가 보니 사람이 아주 많이 모였더라.'라는 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유사함

이유: 연결 어미 '-니'는 어떤 사실을 먼저 진술하고, 그것을 배경 상황으로 하여 그와 관련된 사실을 이어서 설명할 때 사용된다. 이는 의 '-는데'가 '배경 상황 설명'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가장 유사하다.

11. ‘앞으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라.’에서 ‘더라도’는 ‘양보’의 의미에 해당함(헛갈릴텐데 그냥 외우세요) 앞 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뒤 절의 행동을 주문하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그래요

12.

나는 누나가 남긴 떡을 다 먹었다.

이 옷감에는 풀이 뽀뽀하게 먹었다.

여기서 먹었다는 의미는 다르지만 둘 다 두자리 서술어입니다.

13.

그는 황무지를 녹지로 만들었다.

동생이 종이로 인형을 만들었다.

여기서 위에 만들다는 세 자리 서술어이고 아래 만들다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14. <보기>는 종결 표현을 학습하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다음 페이지에

< 보 기 >

선생님: 종결 표현은 대체로 종결 어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 상대 높임의 등급까지 함께 결정돼요. 문장의 종결 표현과 상대 높임의 여섯 등급을 결정하는 종결 어미들은 다음 표의 각 빈 칸에 자기 자리가 있어요. 어느 자리에 어떤 종결 어미가 위치하는지는 외우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으로서 우리말에 대한 직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럼 ‘읽다’의 어간에 적절한 종결 어미를 붙여 ㉠~㉦에 들어갈 활용형을 말해 볼까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격식체	하십시오체	㉠				
	하오체			㉡		
	하계체				㉢	
	해라체					㉣
비격식체	해요체					
	해체		㉤			

학생: 네, 선생님. ([A])가 들어갑니다.

- ① ㉠에는 ‘읽습니다’
- ② ㉡에는 ‘읽는구려’
- ③ ㉢에는 ‘읽으세’
- ④ ㉣에는 ‘읽는구나’
- ⑤ ㉤에는 ‘읽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읽으오’ 혹은 ‘읽으시오’이다. ‘읽는구려’는 하오체이기는 하나 명령형이 아니라 감탄형이므로 감탄문 자리에 들어갈 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하십시오체 평서형 어미는 ‘-습니다’, ‘-ㅂ니다’이다. 따라서 ‘읽습니다’는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③ 하게체 청유형 어미는 ‘-(으)세’이다. 따라서 ‘읽으세’는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④ 해라체 감탄형 어미는 ‘-구나’이다. 따라서 ‘읽는구나’는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⑤ 해체 의문형 어미는 해체 평서형 어미와 동일하게 ‘-어’, ‘-네’, ‘-지’ 등이다. 따라서 ‘읽어’는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해당 표를 보며 개략적인 이해를 하자

구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감탄법
격식체	하십시오체	잡습니다	잡습니까?	잡으십시오	(잡으시지요)	.
	하오체	잡소/잡으오	잡소/잡으오?	잡소/잡으오	잡읍시다	잡는구려
	하게체	잡네	잡나/잡는가?	잡게	잡으세	잡는구먼
	해라체	잡는다	잡나/잡(느)나?	잡아라/잡으렴	잡자	잡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잡아요/잡지요	잡아요/잡지요?	잡아요/잡지요	잡아요/잡지요	잡아요/잡지요
	해체 (반말)	잡아/잡지	잡아/잡지?	잡아/잡지	잡아/잡지	잡아/잡지

+ 표를 보면 알겠지만 상대 높임의 어휘에 낫이면 안됨 상대 높임은 높이지 않는 상대 높임도 존재함

팁을 주자면

일단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는 눈으로 구별이 가능하죠??

하십시오체는 ‘습니다, 십시오, 습니까’등으로 끝나고 해요체는 ‘요’로 끝나니까요

다음은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체’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① ‘-요’를 붙여보고 격식체와 비격식체 구분하기.

말이 되면 비격식체이므로 해체입니다.

② 청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기

상대 높임은 기본적으로 청자에 관한 높임법입니다. 따라서 어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오체의 청자는 주로 '그대, 당신' 등 부부관계 혹은 자기보다 조금 어린 사람이고, 하계체의 청자는 주로 '자네, 김 군' 등 나이든 성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라체임

단, 외워야 할 것

1. -시지요 : 하십시오체의 청유형 어미(-요로 끝나지만 해요체가 아님)
2. -ㅂ시다 : 하오체의 청유형 어미(얼핏 하십시오체로 보이지만 하오체임)
3. 감탄형 어미 '-구려, -구먼, -구나' 각각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하십시오체는 감탄형 어미 없음. 하오, 하계, 해라 순서대로 '-구려, 먼, 나)

다만, 하계체랑 해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어서요. 이 때는 어감 차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 참고 - 하계체와 해체의 구분

하계체에 '요'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계체를 해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내가 자네 살던 고향에 왔네.'라는 문장의 '왔네'에는 '왔네요'와 같이 '요'가 붙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평서문에서 감탄문으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또한 하계체의 명령문인 '한번 먹어보게.'에도 '요'가 붙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먹어보게요.'가 되면 평서문이 된다. 즉 '왔네요'나 '먹어보게요'는 하계체의 평서문 종결어미 '-네', 명령문 종결어미 '-게'에 '요'가 붙은 것이 아니라 해체의 감탄문 종결어미 '-네', 평서문 종결어미 '-게'에 '요'가 붙은 것이다.

예외적으로 종결어미 '-나'는 해체와 하계체에서 둘 다 쓰이는 의문문 종결어미이기 때문에 이 둘은 청자를 고려해서 하계체인지 해체인지 구분해야한다.

예 자네 언제 떠나나?(하오체), 이제 어떡하나?(해체)

15.

부테 니르샤딕 ㉠바르래 누분 ㉡이룬 ㉢네 죽사랏 바르래 잇논 야이오
부처께서 말씀하시되 바다에 누운 일은 네가 생사(生死)의 바다에 있는 모습이고

㉡: 용언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쓰였다.

-> 적절하지 않은 선지임

이유: ㉡ ‘이룬’은 현대어 풀이 ‘(누운) 일은’을 고려할 때, 명사 ‘일’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용언 어간 뒤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쓰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6. 이제는 제발 외우자 로마자 표기법

<보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표기 사례이다. 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글 표기	발음	로마자 표기
㉠	파랑	[파랑]	parang
㉡	물건	[물건]	mulgeon
㉢	비빔밥	[비빔빱]	bibimbap
㉣	국사	[국싸]	guksa
㉤	칼날	[칼랄]	kallal
㉥	뺨는	[뺨는]	ppeonneun
㉦	치달고	[치달꼬]	chidatgo

- ① ㉠과 ㉡을 보니, ‘ㄹ’은 자음 앞인지 모음 앞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로마자로 적는구나.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구나.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는구나.
- ④ ㉠, ㉡, ㉢을 보니, 유음화가 일어나면 앞 ‘ㄹ’은 뒤 ‘ㄹ’의 로마자 표기에 맞추어 적는구나.
- ⑤ ㉣, ㉤, ㉦을 보니, 평음이면서 파열음은 초성인지 종성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로마자로 적는구나.

정답

- ④ ㉠과 ㉡에서 ‘ㄹ’이 초성으로는 ‘r’로, 종성으로는 ‘l’로 달리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음화가 일어나 ‘ㄹㄹ’ 발음이 된 ㉢에서는 앞 ‘ㄹ’의 로마자 표기인 ‘r’에 맞추어 뒤 ‘ㄹ’의 로마자 표기인 ‘r’을 ‘l’로 바꾸어 적고 있다. 따라서 앞 ‘ㄹ’을 뒤 ‘ㄹ’의 로마자 표기에 맞추어 적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 ① ㉠의 ‘ㄹ’은 모음 앞에 쓰였고, ㉡의 ‘ㄹ’은 자음 앞에 쓰였다. 그런데 ‘ㄹ’을 ㉠에서는 ‘r’로 적었고, ㉡에서는 ‘l’로 적었다. 따라서 ‘ㄹ’이 자음 앞인지 모음 앞인지에 따라 로마자가 서로 다르게 표기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의 [ㅃ]은 ‘pp’로 적었고, ㉤의 [ㅃ]은 ‘b’로 적었다. ㉣의 [ㅃ]은 원래부터 된소리였고, ㉤의 [ㅃ]은 된소리되기가 적용되어 바뀐 소리이다. 따라서 된소리되기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의 ‘ㄷ’은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나 ㉧의 ‘ㄷ’은 비음화가 일어나 ‘n’으로 바뀐다. ㉦의 ‘ㄷ’은 ‘d’로 표기되었으나, 비음화가 일어난 ㉧의 ‘ㄷ’은 ‘n’으로 표기되었다. 따라서 비음화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에서 ‘ㅂ’은 초성일 때 ‘b’로, 종성일 때 ‘p’로 적었다. ㉩에서 ‘ㄱ’은 초성일 때 ‘g’로, 종성일 때 ‘k’로 적었다. ㉪에서 ‘ㄷ’은 초성일 때 ‘d’로, 종성일 때 ‘t’로 적었다. ‘ㅂ, ㄱ, ㄷ’은 모두 평음이면서 파열음이므로 초성인지 종성인지에 따라 로마자가 서로 다르게 표기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 비음화, 유음화, ‘ㄴ’ 첨가, 구개음화, 거센소리되기의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음
2.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음.
3.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4. 심화(여기까지 외우면 매우 좋음)

ㄹ의 로마자 표기 방식

- ‘ㄹ’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 올 때 → ‘r’ 에 임실: Imsil
- ‘ㄹ’이 모음 앞에 올 때 → ‘r’ 에 설악: Seorak
- ‘ㄹㄹ’일 때 → ‘l l’ 에 대관령[대팔령]: Daegwallyeong

ㄱ, ㄷ, ㅂ의 로마자 표기 방식

- 모음 앞에서 → ‘g, d, b’ 에 구미: Gumi / 백암: Baegam
-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 → ‘k, t, p’ 에 합덕: Hapdeok / 벚꽃[별꽃]: beotkkot

17. 중의성 관련 지문형 문법(‘중의성’ 출제할 때 됨)

중의성은 어떤 언어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특성을 말한다. 문장에서 중의성이 생기는 원인으로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문장에서 동음이의어나 다의어가 사용될 때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우리 이제 이 길을 함께 걸을까요?”와 같은 문장에서 ‘길’은 물리적인 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삶의 목적이나 방향과 같은 뜻을 지닐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다.

둘째, 문장의 구조가 둘 이상의 구조로 분석될 수 있을 때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씩씩한 동주와 민지가 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다.”는 ‘씩씩한’이 ‘동주’를 꾸며 줄 수도 있고 ‘동주와 민지’를 꾸며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의적이다. 즉 ‘씩씩한 동주’와 ‘민지’가 접속되는 구조일 때와 ‘씩씩한’이 ‘동주와 민지’를 수식하는 구조일 때에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어떤 대상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이 어떤 범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그 반 학생은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에서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는 사람이 ‘학생 개개인’이라면 학생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한 대씩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학생 전체’라면 반 학생들이 단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위의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외에도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는 많다. 물론 어떤 문장이 중의성이 있다고 해도 문장이 이어지는 글에서는 대개 앞뒤의 문맥이 주어지므로, 중의성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한 문장의 중의성이 글을 원활하게 읽는 데에 방해가 될 때도 있으므로, 가급적 중의성이 없는 문장을 쓰는 것이 좋다.

[A] 중의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의성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지만, 그 원인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적절한 문맥을 제공하거나 어순을 바꾸거나 적절한 수식어 혹은 문장 부호를 사용하거나 상세히 풀어 써 주는 등의 방법으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1. ㉠에 해당하는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선희는 울면서 떠나가는 민호를 배웅했다.
- ② 준현이는 현지와 민호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 ③ 미술관에서 학생들은 전시 작품을 모두 감상했다.
- ④ 그 선생님은 아내보다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하신다.
- ⑤ 사람들이 다채로운 곳을 다니다 보면 견문이 넓어진다.

2. [A]를 바탕으로 ㉡~㉣에 나타난 중의성의 원인과 중의성 해소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그 자리에 가 보니 배가 많이 있었다.
- ㉢ 두 명의 포수가 참새 네 마리를 잡았다.
- ㉣ 언니의 사진을 보니 옛 추억이 떠오른다.
- ㉤ 대학에 합격한 영수와 철수가 함께 찾아왔다.
- ㉥ 선주는 화를 내며 변명하는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 ① ㉡: ‘배’의 동음이의어가 있으므로 ‘배’ 앞에 ‘큼직한’과 같은 수식어를 추가하여 ‘배’의 의미를 한정한다.
- ② ㉢: ‘두 명의 포수가 참새 네 마리’ 중 어떤 범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므로 ‘두 명의 포수가’ 뒤에 ‘각각’을 넣어 준다.
- ③ ㉣: ‘언니의’의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므로 ‘언니의’를 ‘언니를 찍은’과 같이 상세히 풀어 써 준다.
- ④ ㉤: 문장 구조가 두 가지로 분석되므로 ‘철수가’를 문장 맨 앞으로 이동하여 문장 구조를 한 가지로 한정한다.
- ⑤ ㉥: 문장 구조가 두 가지로 분석되므로 ‘화를 내며’ 뒤에 쉼표를 사용하여 문장 구조를 한 가지로 한정한다.

1. 정답

- ③ 이 문장은 ‘학생들 모두’가 전시 작품을 감상했다는 뜻도 될 수 있고(전시 작품은 일부만을 감상했을 수 있음.), 학생들이 ‘전시 작품 모두’를 감상했다는 뜻도 될 수 있다(학생들 중 일부만이 감상했을 수 있음.). 이 문장에서 ‘모두’는 전부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말이 어떤 범위에 걸쳐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 ① 우는 행위를 한 사람이 ‘선회’인 해석과 ‘민호’인 해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전자에서는 ‘선회는 울면서’가 ‘-면서’로 연결된 앞 절이고, 후자에서는 ‘울면서 떠나가는’이 ‘민호’를 꾸미는 관형사절이다. 따라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큰 도움을 준 행위를 한 사람이 ‘준현’인 해석과 ‘준현’과 ‘현지’인 해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전자에서 ‘현지와 민호’는 접속 조사로 이어진 명사구이고, 후자에서 ‘현지와’는 전체 문장의 부사어이다. 따라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조사 ‘보다’를 통해 비교하는 대상이 ‘그 선생님’과 ‘아내’인 해석과 ‘아내’와 ‘영화’인 해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전자에서는 ‘그 선생님은 아내보다’가 먼저 해석되고, 후자에서는 ‘아내보다 영화를’이 먼저 해석된다. 따라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사람들이’가 ‘다채로운’의 주어인 해석과 ‘다니다 보면’의 주어인 해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전자에서는 ‘사람들이 다채로운’이 ‘곳’을 꾸미는 관형사절이고, 후자에서는 ‘다채로운 곳을 다니다 보면’이 ‘사람들이’를 주어로 하는 절의 목적어와 서술어이다. 따라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답

- ① ‘배’는 신체의 일부분, 과일, 교통수단의 한 종류 등의 뜻을 나타내는 동음이의어인데, ㉠은 문장의 의미상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일의 한 종류와 교통수단의 한 종류 둘 중 무엇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므로 중의적인데, 이 중의성은 ‘큼직한’이라는 수식어를 추가한다고 해도 해소되지 않는다.

{오답}

- ② ‘두 명의 포수’가 각각 ‘참새 네 마리’를 잡아 총 여덟 마리의 참새를 잡은 해석과 ‘두 명의 포수’가 합쳐서 총 네 마리의 참새를 잡은 해석 둘 다 가능하다. ‘두 명의 포수가’ 뒤에 ‘각각’을 넣어 주면 전자로 해석이 고정되어 중의성이 해소된다.
- ③ ‘언니의 사진’은 ‘언니가 소유한 사진’, ‘언니가 찍은 사진’, ‘언니를 찍은 사진’, ‘언니가 보내 준 사진’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언니의 사진’을 ‘언니를 찍은 사진’과 같이 상세히 풀어 써 주면 중의성이 해소된다.
- ④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영수’인 해석과 ‘영수와 철수’인 해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철수가’를 문장 맨 앞으로 옮기면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영수’인 해석으로 한정된다.
- ⑤ 화를 낸 사람이 ‘선주’인 해석과 ‘그’인 해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 ‘화를 내며’ 뒤에 겹표를 사용하면, ‘선주는 화를 내며’가 이어진문장의 앞 절로 해석되므로 화를 낸 사람이 ‘선주’인 해석으로 한정된다.

18. 선어말 어미 ‘-였-’은 ‘하-’와 결합할 때만 나타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임

19. ‘호랑이였다’의 형태소 분석은 명사 ‘호랑이’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이-’, 선어말어미 ‘-였-’,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였’은 이와 엮이 결합하여 줄어든 형태임

20. 중세국어의 모음조화에 따른 어미나 조사의 형태 암기

1) 관형사형 어미는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은’,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은’, 중성 모음인 ‘ㅣ’ 뒤에서는 두 형태 모두 쓰일 수 있다.

2) 보조사는 결합하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고 양성 모음인 경우에는 ‘은’이 쓰이고, 결합하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고 양성 모음인 경우에는 ‘는’이 쓰인다

3) 부사격 조사는 양성 모음 뒤에서는 ‘애’, 음성 모음 뒤에서는 ‘에’, ‘ㅣ’ 모음 뒤에서는 ‘예’로 나타난다.

4) 주격 조사는 자음으로 끝나면 ‘이’, ‘ㅣ’나 반모음 ‘j’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면 ‘ㅣ’, ‘ㅣ’나 반모음 ‘j’로 끝나면 ∅로 나타난다.

21. 매체에 나온 문법 문제

(가): 신청자의 현재 나이가 30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성년 시기인 19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말의 ‘-어야’의 쓰임이 (가)의 @에서 ‘-어야’와 동일한 것은?

< 보 기 >

어미 ‘-어야’는 앞 절의 일이 뒤 절의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이거나, 아무리 가정하여도 영향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인다. 또한 어미 ‘-어야’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아무리 길어야 오늘을 넘지 않을 거야.
- ② 신발은 어느 정도 신던 것이어야 편하다.
- ③ 외삼촌은 막차를 타기 위해 뛰어야 했다.
- ④ 네가 아무리 울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 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답}

② '게시물이어야'에서 '-어야'는 조건임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인데, '신발은 어느 정도 신던 것이어야 편하다.'에서 '것이어야'의 '-어야'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나타낸다.

{오답}

① '아무리 길어야 오늘을 넘지 않을 거야.'에서 '길어야'의 '-어야'는 아무리 가정을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외삼촌은 막차를 타기 위해 뛰어야 했다.'에서 '뛰어야'의 '-어야'는 '하다' 앞에 쓰여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④ '네가 아무리 울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에서 '울어야'의 '-어야'는 아무리 가정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에서 '겪어야'의 '-어야'는 '하다' 앞에 쓰여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22. 음운 변동의 순서 암기

굵게 -> 굵께 -> 글게(즉 된소리되기가 먼저고 그 다음 자단)

옳다 -> 옹다 -> 옹따 -> 읊따

닭과 -> 닭파 -> 닥파

넓고 -> 넓꼬 -> 널꼬

굵나 -> 극나 -> 궁나

23.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 절이 뒤 절 안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이동하지 못함

예시) 아이가 울자 엄마는 아이를 달랬다.(종속)

-> 엄마는 아이가 울자 아이를 달랬다. 로 바뀌어도 자연스러움

산은 아름답고 강은 깨끗했다.(대등)

-> 강은 산은 아름답고 깨끗했다.(문법적으로 비문임 부자연)

24. 사동 피동 주동 타동 자동 제발 이제는 구분하자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된다. 자동사는 '눅다'와 같이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타동사는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에도 미쳐 주어는 물론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하나의 동사가 동일한 의미로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치다'는 '울음소리가 그치다.'에서는 자동사로 쓰인 반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다.'에서는 타동사로 쓰인다.

동사의 분류는 행동의 자발성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주어가 자발적으로 움직임을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능동사라고 하고, 주어로 나타난 대상이 남에게 움직임을 당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피동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경찰이 도둑을 잡다.'에서 '잡다'는 주어인 '경찰이'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능동사이다. 이에 비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에서 '잡히다'는 주어인 '도둑이'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닌 '경찰에게' 잡힘을 당한 의미를 나타내므로 피동사이다. 능동사 '잡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인 반면, 피동사 '잡히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다.

동사를 '아이가 밥을 먹다.'에서 '먹다'처럼 주체가 직접 행동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주동사와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의 '먹이다'와 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사동사로 구분하기도 한다. 주동사는 자동사인 경우도 있고, 타동사인 경우도 있으나 사동사는 모두 타동사이다.

피동사와 사동사는 능동사와 주동사에 피동 접미사와 사동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다. 능동사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피동사 '잡히다'가 되고, 주동사 '먹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사동사 '먹이다'가 형성되는 것이다.

㉠한편 다의어나 동음이의어는 각각의 의미에 대한 사동사나 피동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있어 이를 잘 구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머리를 감기다.'에서 '감기다'는 '머리를 물로 씻다.'라는 의미를 갖는 '감다'의 사동사인 반면, '줄이 잘 감기다.'에서 '감기다'는 '물체가 다른 물체에 말리거나 빙 둘러다.'의 의미를 갖는 '감다'의 피동사이다.

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에 입김을 불었다.'에서의 '불다'는 타동사인 반면, '바람이 분다.'에서의 '불다'는 자동사이다.
- ② '편이 돌로 갈렸다.'에서의 피동사 '갈리다'에 대응되는 능동사는 자동사이다.
- ③ '동생에게 시계를 보였다.'에서의 사동사 '보이다'에 대응되는 주동사는 타동사이다.
- ④ '막차가 끊겼다.'에서의 '끊기다'는 타동사 '끊다'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해 자동사로 쓰인 것이다.
- ⑤ '낙엽을 불에 태웠다.'에서의 '태우다'는 자동사 '타다'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해 타동사로 쓰인 것이다.

2. ㉠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보다

- 「1」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 「2」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
- 「3」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

- ㉡ 아이는 친구에게 새 장난감을 **보이며** 자랑했다.
- ㉢ 멀리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아름답다.
- ㉣ 회의가 길어지자 사장은 피곤하다는 눈치를 **보였다**.
- ㉡ 반격의 기회가 **보이자**, 대포가 먼저 발사되었다.
- ㉤ 주인공의 이별로 인해 이야기의 결말이 **보인다**.

- ① ㉡는 보다 「1」의 사동사가 쓰인 예이다.
- ② ㉢는 보다 「1」의 피동사가 쓰인 예이다.
- ③ ㉣는 보다 「2」의 사동사가 쓰인 예이다.
- ④ ㉡는 보다 「2」의 피동사가 쓰인 예이다.
- ⑤ ㉤는 보다 「3」의 사동사가 쓰인 예이다.

1

정답

② ‘편이 둘로 갈렸다.’에서 피동사 ‘갈리다’에 대응되는 능동사 ‘가르다’는 ‘편을 가르다.’와 같이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다. 따라서 ‘갈리다’에 대응되는 능동사가 자동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① ‘손에 입김을 불었다.’의 ‘불다’는 목적어 ‘입김을’을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고, ‘바람이 분다.’의 ‘불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이다. 따라서 ‘손에 입김을 불었다.’의 ‘불다’는 타동사인 반면, ‘바람이 분다.’의 ‘불다’는 자동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동생에게 시계를 보였다.’에서 사동사 ‘보이다’에 대응되는 주동사 ‘보다’는 ‘시계를 보다.’와 같이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다. 따라서 ‘보이다’에 대응되는 주동사가 타동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막차가 끊겼다.’의 ‘끊기다’는 ‘운행을 하지 않다.’의 의미를 갖는 자동사이다. ‘끊기다’는 타동사 ‘끊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따라서 ‘막차가 끊겼다.’의 ‘끊기다’가 타동사 ‘끊다’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자동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낙엽을 불에 태웠다.’에서 ‘태우다’는 자동사 ‘타다’에 사동 접미사 ‘-이우-’가 결합된 사동사, 즉 타동사이다. 따라서 ‘태우다’가 자동사 ‘타다’에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타동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2

{정답}

⑤ ㉔에서 ‘보인다’는 ‘어떤 결과나 관계를 맺기에 이르다.’의 뜻을 갖는 ‘보다’의 피동사이다. 따라서 ㉔가 보다 「3」의 사동사가 쓰인 예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① ㉑에서 ‘보이며’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의 뜻을 갖는 ‘보다’의 사동사이다. 따라서 ㉑가 보다 「1」의 사동사가 쓰인 예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㉒에서 ‘보이는’은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의 뜻을 갖는 ‘보다’의 피동사이다. 따라서 ㉒가 보다 「1」의 피동사가 쓰인 예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㉓에서 ‘보였다’는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의 뜻을 갖는 ‘보다’의 사동사이다. 따라서 ㉓가 보다 「2」의 사동사가 쓰인 예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㉔에서 ‘보이자’는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의 뜻을 갖는 ‘보다’의 피동사이다. 따라서 ㉔가 보다 「2」의 피동사가 쓰인 예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5. 명령형과 청유형의 구분이 중요함

구분법¹: 주로 명령형은 청자만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만

청유형은 함께 행동하자고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음

구분법²: 명령형과 청유형은 종결 어미의 차이가 있음

명령형은 ‘어라’, ‘게’, ‘오’, ‘십시오,’ ‘시오’, ‘라’ 등

청유형은 ‘자’, ‘세’, ‘시지요’, ‘하십시오’ 등

첨언하자면 별 일 없으면 쉽게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저거 사용하지 말고 구분이 안가는 어려운 경우에만 추가로 사용할 것

헛갈리는 대표적 예시 두 개

A: 짐칸이 너무 높아서 그러는데 ㉠이 짐 좀 올려 주겠냐?

B: (짐을 들며) 예, 할머니. 제가 올려 드릴게요.

A: 상처는 아물었나요? ㉡어디 좀 봅시다.

B: (상처를 보여 주며) 많이 좋아졌습니다.

㉠ ㉠: 의문문의 형식으로 청유의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 ㉡: 청유문의 형식으로 명령의 의도를 전달하는 간접 발화이다.

㉠은 문장의 종결 형식은 의문형이나 문맥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행위를 요구하는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청자에게만 행동할 것을 요구함 구분법¹ 사용하기) 간접 발화는 맞으나 청유의 의도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은 문장의 종결 형식은 청유형이나 문맥에서 해석되는 의미는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청자에게만 행동할 것을 요구함 구분법¹ 사용하기) 간접 발화이고 명령의 의도도 맞음

26. o/x 퀴즈

예) 텃밭을, 텃밭이, 텃밭도, 텃밭만

위의 예시에서 ‘ㅆ’이 앞에 있는 마찰음 ‘ㅅ’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되기가 한 번 일어났다. (o/x)

정답: x

‘스’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바뀐 후에 뒤의 첫소리인 ‘ㅂ’에 영향을 주어 [ㅃ]으로 발음이 바뀐 것이므로 마찰음 ‘스’이 영향을 주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7. 선달은 설+달임

이는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임 따라서 어법에 맞지 않으나 소리대로 적은 예시임

28. 중세 국어에서 ‘아래 아’는 저모음임

29. o/x 퀴즈

새들은 저마다 고유한 소리를 지니고 있는데, 어미와 새끼는 새끼가 알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의 소리를 익혀서 다른 새와 구별할 수 있거든요.

연결 어미 ‘-는데’를 활용하여 앞 절의 내용을 뒤 절의 내용과 대립되도록 이어 주고 있다. (o/x)

정답: x

‘있는데’의 연결 어미 ‘-는데’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이고 있다. 따라서 ‘-는데’가 앞 절의 내용을 뒤 절의 내용과 대립되도록 이어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0. 이제는 외우자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보기>는 인용 표현에 관한 수업의 한 장면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직접 인용 표현은 원 발화자의 말이나 생각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고, 간접 인용 표현은 화자의 현재 관점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글에서는 직접 인용된 내용 앞뒤에 따옴표를 씁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시간 표현, 공간 표현,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종결 표현, 인용 조사 등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이 어떻게 바뀔지 말해 볼까요?

할머니께서는 나에게 어저께 그 공원에서 “㉠네 동생이 심심해해서 ㉡내가 ㉢어저께 ㉣네 동생을 데리고 ㉤여기서 ㉥놀았어.”라고 말씀하셨다.

학생: 네, 선생님. ([A])

선생님: 그래요. 잘 대답했어요.

- ① ㉠은 ‘할머니’가 아닌 ‘나’의 관점에서 본 대상으로 표현되어야 하니까 ‘내’로 바꿉니다.
- ② ㉡은 ‘할머니’를 높이는 재귀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니까 ‘당신께서’로 바꿉니다.
- ③ ㉢은 발화 시점이 기준이 아니라 현재 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 ‘그저께’로 바꿉니다.
- ④ ㉣은 ‘내’가 현재의 관점에서 본 ‘그 공원’의 위치를 표현해야 하니까 ‘거기서’로 바꿉니다.
- ⑤ ㉤은 종결 표현, 인용 조사, 높임 표현이 간접 인용에 맞게 쓰여야 하니까 따옴표가 없게 어지고 ‘놀았다고’로 바꿉니다.

{정답}

- ⑤ 종결 표현, 인용 조사가 간접 인용에 맞게 바뀌고 따옴표까지 없어진 것은 적절하지만, ‘할머니’의 행위를 ‘나’의 관점에서 표현해야 하므로 높임 표현까지 바꾸어 ‘노셨다고’로 써야 한다.

{오답}

- ① 할머니의 관점에서 발화된 직접 인용절에 쓰인 ‘네’는 간접 인용절에서는 ‘내’로 바뀌어야 한다.
- ② 할머니의 관점에서 발화된 직접 인용절에 쓰인 ‘내가’는 간접 인용절에서는 ‘당신께서’로 바뀌어야 한다. ‘당신’은 극존대 재귀 대명사이다.
- ③ 할머니의 관점에서 발화된 직접 인용절에 쓰인 ‘어저께’는 실제로는 어저께의 어저께이므로 간접 인용절에서는 ‘그저께’로 바뀌어야 한다.
- ④ 할머니의 관점에서 발화된 직접 인용절에 쓰인 ‘여기서’는 간접 인용절에서는 ‘거기서’로 바뀌어야 한다.

31. 반모음, 이중모음 관련 지문형(빨간글씨 암기)

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과 혀의 모양이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과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 이때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복합체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중 모음 ‘ㅝ’는 반모음 ‘j’와 단모음 ‘o’가 결합된 복합체이다.

단모음이나 이중 모음과 달리, 한글 글자 가운데 반모음을 표기하기 위한 글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중 모음을 나타내는 모음자를 보면 한글에서 반모음을 표시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이중 모음을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된 복합체라고 했을 때 이중 모음에서 단모음을 나타내는 부분을 제거하면 반모음의 표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모음 ‘j’와 단모음 ‘a’로 이루어진 이중 모음 ‘ㅏ’에서 ‘a’를 제외하면 <그림>에서 점선 동그라미로 표시된 짧은 선만 남게 된다.



<그림>

이 짧은 선이 반모음 ‘j’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짧은 선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점으로 표시했으므로 ‘ㅏ’나 ‘ㅝ’에서 반모음 ‘j’의 표시는 점으로 동일하였다.

이러한 한글의 반모음 ‘j’의 표시는 현대 국어에서 반모음 ‘j’와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모든 이중 모음에 적용된다. 현대 국어의 이중 모음 ‘ㅏ, ㅑ, ㅝ, ㅞ, ㅟ, ㅠ, ㅡ’ 등에서 현대 국어 단모음에 해당하는 ‘ㅏ, ㅑ, ㅓ, ㅕ, ㅟ, ㅡ’를 제외하면 반모음 ‘j’는 모두 짧은 선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한편 반모음 ‘j’가 단모음 뒤에 오는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세 국어의 이중 모음 ‘ㅙ, ㅚ, ㅛ, ㅜ’ 등을 살펴봐야 한다.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 ‘ㅙ, ㅚ, ㅛ, ㅜ’ 등은 모두 반모음 ‘j’가 단모음 뒤에 더해진 이중 모음이었는데, 여기서도 ‘ㅏ, ㅑ, ㅓ, ㅕ’를 제거하면 단모음에 후행하는 ‘j’가 반모음 ‘j’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모음 ‘w’가 단모음 앞에 오는 경우는 이중 모음 ‘ㅘ, ㅙ, ㅚ, ㅛ’이다. 이 글자에서 단모음을 표시하는 ‘ㅏ, ㅑ, ㅟ, ㅡ’를 제거하면 ‘w’가 단모음 앞의 ‘ㅓ’나 ‘ㅕ’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반모음 ‘j’와 달리, 반모음 ‘w’는 ‘ㅓ,’ ‘ㅕ’라는 두 가지 다른 표기가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모음 조화와 관련 되는데, 반모음 ‘w’가 양성 계열 ‘ㅏ, ㅟ’와 결합될 때는 양성 계열인 ‘ㅓ’로 표기하고, 음성 계열 ‘ㅑ, ㅡ’에 대해서는 음성 계열 ‘ㅕ’로 표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1.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ㅙ’나 ‘ㅚ’와 같은 글자가 존재하는
- ② ‘ㅏ’나 ‘ㅑ’와 같은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
- ③ ‘ㅓ’나 ‘ㅕ’와 같은 글자는 존재하지 않는
- ④ 반모음 ‘j’에 대해 하나의 표기만 존재하는
- ⑤ 반모음 ‘w’에 대해 하나의 표기만 존재하는

2. 윗글을 바탕으로 ‘ㅛ’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ㅛ’는 단모음이었다.
- ② ‘ㅛ’는 반모음 ‘j’가 단모음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이었다.
- ③ ‘ㅛ’는 반모음 ‘j’가 단모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이었다.
- ④ ‘ㅛ’는 반모음 ‘w’가 단모음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이었다.
- ⑤ ‘ㅛ’는 반모음 ‘w’가 단모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이었다.

1

{정답}

- ③ 반모음 ‘w’는 단모음 앞에서 ‘ɔ’나 ‘ʊ’로 표시되고, 이 두 표기는 모음 조화에 따라 선택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양성 모음 ‘ㅏ’ 앞에서는 ‘ɔ’가, 음성 모음 ‘ㅓ’ 앞에서는 ‘ʊ’가 선택되어 각각 ‘ㅏ’, ‘ㅓ’로 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ㅏ’와 같은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반모음 ‘w’는 단모음 앞에서 ‘ɔ’나 ‘ʊ’로 표시되고, 이 두 표기는 모음 조화에 따라 선택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ㅓ’나 ‘ㅕ’와 같은 글자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 ② 반모음 ‘w’는 단모음 앞에서 ‘ɔ’나 ‘ʊ’로 표시되고, 이 두 표기는 모음 조화에 따라 선택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중 모음인 ‘ㅓ’ 앞에서 ‘ɔ’나 ‘ʊ’ 가운데 무엇이 올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ㅏ’와 같은 글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 ④ 반모음 ‘w’는 단모음 앞에서 ‘ɔ’나 ‘ʊ’로 표시되고, 이 두 표기는 모음 조화에 따라 선택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반모음 ‘j’에 대해 하나의 표기만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 ⑤ 반모음 ‘w’는 단모음 앞에서 ‘ɔ’나 ‘ʊ’로 표시되고, 이 두 표기는 모음 조화에 따라 선택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반모음 ‘w’에 대해 하나의 표기만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2

{정답}

- ③ 반모음 ‘j’가 단모음 뒤에 오면 ‘j’로 표시하므로 단모음 ‘ㅏ’ 뒤에 반모음 ‘j’가 오면 ‘ㅓ’가 된다. 따라서 ‘ㅓ’가 반모음 ‘j’가 단모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이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 ① ‘ㅓ’는 표기나 실제 발음을 고려할 때 이중 모음이다. 따라서 ‘ㅓ’가 단모음이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반모음 ‘j’가 단모음 앞에 오면 짧은 선으로 표시해야 한다. 따라서 ‘ㅓ’가 반모음 ‘j’가 단모음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이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반모음 ‘w’는 단모음 앞에 오면 ‘ɔ’나 ‘ʊ’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ㅓ’가 반모음 ‘w’가 단모음 앞에 오는 이중 모음이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반모음 ‘w’가 단모음 뒤에 오는 문자에 대한 설명을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ㅓ’가 반모음 ‘w’가 단모음 뒤에 오는 이중 모음이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2. 제발 주동 사동 피동 외워줘요 두문제 풀고 정답은 다음페이지

열량은 ㉠줄이고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맛을 ㉡내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혈당을 ㉤올립니다.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를 ㉡~㉤에서 찾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한다. 사동과 피동은 보통 동사나 형용사 어간에 사동 또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 즉 ㉠사동사나 ㉢피동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

㉢

- | | |
|-----------|---------|
| ① a, b | c, d, e |
| ② a, e | b, c, d |
| ③ b, c | a, d, e |
| ④ a, c, e | b, d |
| ⑤ b, c, e | a, d |

밑줄 친 부분에서 <보기>의 ㉠,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보 기 >

피동은 피동사나 '-어지다'를 통해 표현된다. 또 '명사 + -하다' 형식의 능동사는 '명사 + -되다' 형식의 피동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피동의 형식들 중 둘 이상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피동 형식의 불필요한 중복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사동은 사동사나 '-게 하다'를 통해 표현된다. 또 '명사 + -하다' 형식의 주동사는 '명사 + -시키다' 형식의 사동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명사 + -하다' 형식의 주동사를 써야 할 곳에 '명사 + -시키다' 형식의 사동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동 형식의 잘못된 사용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① 현주가 나한테 소개시켜 준 친구는 이번 학년도에 나하고 같은 반에 배치되었다.
- ②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니 빨리 입원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③ 준수가 그 약하던 몸을 이 정도까지 단련시켰다고 하니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다.
- ④ 그에게 탁구 칠 때의 바른 자세를 오래 연습시켰는데도 그의 자세는 고쳐지지 않았다.
- ⑤ 이 선을 저 선에 연결시키고 나서 시동을 다시 걸어 보시면, 잘 수리되었음을 아실 겁니다.

㉠ ‘줄이다’는 동사 어간 ‘줄-’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고, ㉡ ‘예상되다’는 명사 ‘예상’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 ‘내다’는 동사 어간 ‘나-’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고, ㉣ ‘적히다’는 동사 어간 ‘적-’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그리고 ㉤ ‘올리다’는 동사 어간 ‘오르-’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사이다. 따라서 사동사는 ㉠, ㉢, ㉤이고, 피동사는 ㉡, ㉣이다.

정답

㉢ ‘(몸을) 단련시켰다고’는 ‘(몸을) 단련했다고’로 써도 되므로 ㉠에 해당한다. ‘맡겨지지’는 피동사 ‘맡기다’에 다시 ‘-어지다’를 붙인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맡기지’ 혹은 ‘맡어지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 ‘소개시켜’는 사동 형식의 잘못된 사용이므로 ㉠에 해당하며 ‘소개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치되었다’는 적절한 피동형식이다.

㉡ ‘입원시켜’는 적절한 사동 형식이다. ‘생각되어집니다’는 ‘-되다’ 피동 형식과 ‘-어지다’ 피동 형식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하며 ‘생각됩니다’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습시켰는데도’는 적절한 사동 형식이고, ‘고쳐지지’는 적절한 피동 형식이다.

㉤ ‘연결시키고’는 사동 형식의 잘못된 사용이므로 ㉤에 해당하며 ‘연결하고’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리되었음을’은 적절한 피동 형식이다.

33. 중세국어 ‘네’에서 ‘네’는 2인칭 ‘너’에 ‘ㅣ’가 붙어 만들어진 형태임 즉 ‘네’는 2인칭을 나타내서 의문문으로 만들어지면 ‘-ㄴ다’가 쓰여야 함

중세국어 ‘아니하다’는 보조 용언으로서 앞말의 품사에 따라 동사/형용사가 결정됨

34. 문을 열어 놓아라에서 열어서 놓다가 성립안하고 놓다가 추상적 의미기에 보조 용언임

편지를 부쳐 주었다에서 주었다는 추상적 의미로 보조용언임

35. 잡아당기다는 보조용언이 없음
 굽어모으다도 보조 용언이 없음
 실제로 그 두 의미를 모두 가지기 때문
 잡아서 끌어당기다
 돈을 굽어서 모으다 모두 성립

36. <보기>는 ㉠과 관련한 수업 장면이다.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선생님, ㉠의 의미를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았는데요, 재미있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의 발음과 표기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선생님: 좋은 질문이에요. 이 단어와 관련한 표준어 규정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학생: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다음 단어들 중에서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쓴 단어를 고르고, ㉠과 같이 ‘웃-’으로 고쳐 써야 할 단어를 모두 말해 볼까요?

㉠ 윗입술 ㉡ 윗눈썹 ㉢ 윗층 ㉣ 윗어른 ㉤ 위쪽

학생: 네, 맞게 쓴 단어는 ([A])이고, ‘웃-’으로 고쳐 써야 할 단어는 ([B])입니다.

선생님: 잘 말해 주었어요.

- | [A] | [B] |
|--------|--------|
| ① a, c | ① b |
| ② b, e | ② d |
| ③ a, d | ③ c, e |
| ④ b, c | ④ d, e |
| ⑤ d, e | ⑤ b, c |

{정답이 정답인 이유}

- ㉔ ㉑: ‘아랫입술’이라는 단어가 있다. 곧 ‘입술’은 ‘아래, 위’의 대립이 있는 단어이므로 제12항 본 규정에 따라 ‘윗입술’로 써야 한다. 따라서 [A], [B]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다.
- ㉔ ㉒: ‘아랫눈썹’이라는 단어가 있다. 곧 ‘눈썹’은 ‘아래, 위’의 대립이 있는 단어이므로 제12항 본 규정에 따라 ‘윗눈썹’으로 써야 한다. 따라서 [A]에 들어가야 한다.
- ㉔ ㉓: ‘층’에서의 ‘츠’은 거센소리이므로 제12항 ‘다만 1’ 규정에 따라 ‘위-’를 써야 한다. 따라서 [A], [B] 어느 곳에도 들어갈 수 없다.
- ㉔ ㉔: ‘아랫어른’이라는 단어는 없다. 곧 ‘어른’은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이므로 제12항 ‘다만 2’ 규정에 따라 ‘웃-’으로 써야 한다. 따라서 [B]에 들어가야 한다.
- ㉔ ㉕: ‘쪽’에서의 ‘쯔’은 된소리이므로 제12항 ‘다만 1’ 규정에 따라 ‘위-’를 써야 한다. 따라서 [A]에 들어가야 한다.